



www.at.or.kr

대만 농식품 수출품목 소매가격조사 6월



김



음료류



주류



제과류



면류



소스류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6월 품목 및 원산지별 소매 가격 분석 - 대만



1. 김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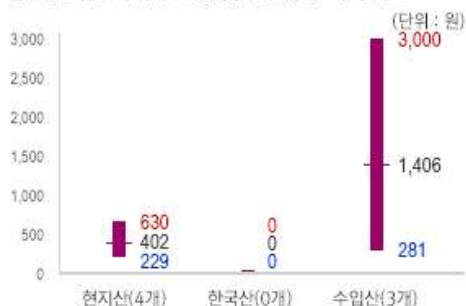
1)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비교



2. 음료류 (과채 주스)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3. 면류 (라면)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4. 주류 (민속주)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민속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5. 제과류 (비스킷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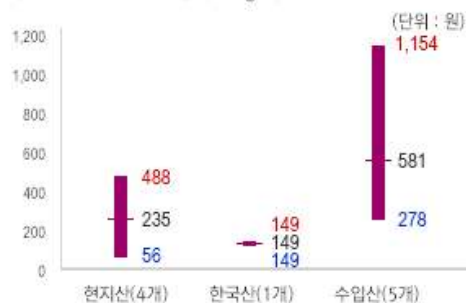
1)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6. 소스류 (조미료)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조미료 중량(10g) 당 가격 비교



※ 대만 달러의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6월 27일자 기준으로 작성, 1달러 = 37.5원

1~6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대만



1. 김



2. 음료류 (과채 주스)



3. 면류 (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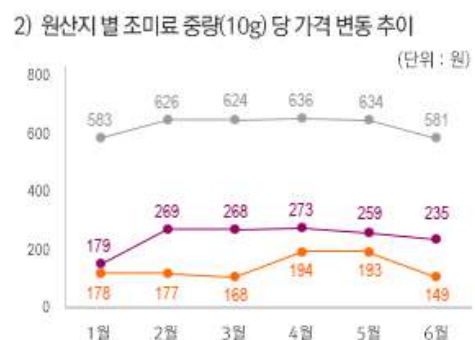
4. 주류 (민속주)



5. 제과류 (비스킷류)



6. 소스류 (조미료)



※ 대만 달러의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6월 27일자 기준으로 작성, 1달러 = 37.5원

면류

가격 하락 ▼ 수요 증가 ▲ “ 할인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신라면 블랙 ”

대만의 농심 라면 독점 수입유통 업체인 SHING HER INT'L CO.,LTD의 수입 담당자 Ms. Chelsea에 따르면 신라면 블랙이 당사 6월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집계되었다고 전했다. 그녀는 최근 신라면 신규 공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라면 블랙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을 찾는 고객 수와 더불어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Ms. Chelsea는 이번 가격 하락은 프로모션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 전하며 환율이 큰 폭으로 변동되거나 공급사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상 별다른 가격 조정 예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농심사 신라면 블랙]

스낵류

가격 상승 ▲ “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네덜란드산 과자 ”

1987년 대만에서 설립되어 약 60여개에 달하는 서양 수입 스낵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IUT International Trade Co., Ltd의 담당자는 네덜란드산 과자의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제품 공급사의 주문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최신 환율을 반영하여 제품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 가격이 변동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4개월 간 유로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제품 가격 역시 상승했지만 장기 판매를 해온 제품이라 고객들의 수요가 줄지 않은 점이 불행 중 다행이라 전했다.



[네덜란드산 스낵제품]

수요 감소 ▼ “ 한국 사탕 너무 비싸요 ”

대만에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한국 식품을 유통하고 있는 한제명미품(韓濟名味品)의 담당자에 따르면 한국 사탕의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는 현재 누룽지맛 사탕, 박하맛 사탕, 홍삼 캔디 등을 취급하고 있는데 제품 가격이 대만 현지 제품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되어있어 고객들이 선뜻 구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의 경우 포장 단위도 1kg 내외의 대용량이라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매량을 어떻게 늘릴지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딱히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국 사탕]

조미김

수요 증가 ▲ “ 여름엔 김밥이 최고야 ”

대만에서 각종 한국 식품 및 조리도구를 판매하고 있는 KOREA SHOP의 대표 Ms. Wei는 최근 한국 조미김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녀는 광천농협, 청정원 등의 공급사로부터 도시락 김 및 돌자반을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 도시락 김의 판매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여름이 되면서 식욕이 저하된 대만 고객들이 간편하게 밥을 김에 싸먹으면서 끼니를 해결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했다. Ms. Wei는 여름이 되어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판매량이 계속 오를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가격 조정에 관해서는 주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미김]

기타

가격 상승 ▲ “ 한국 식당에서 수요가 늘어난 소주와 고추장 ”

1990년에 설립되어 청정원, 쉐프원, 오푸드 등의 한국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한제명미품(韓濟名味品)의 담당자는 소주의 판매량이 소폭 상승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주의 경우 일반 고객에게도 판매하고 있지만 최근 한국 식당에서 주문하는 양이 늘어났다고 귀띔했다. 또한 소주와 함께 고추장의 판매량도 소량 상승했는데 이 같은 현상은 한류열풍의 잔재가 아직 대만에 남아있어 한국 음식을 찾는 고객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소주 및 고추장]